

## 少陰人 藥材의 修治에 관한 고찰

유관석 · 주종천 · 김경요 · 임정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침구과

### Abstract

#### A Study on the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of Soeumin Based on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Yoo Kwan-Suk, Joo Jong-Cheon, Kim Kyung-Yo, Lim Jeong-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nkwang Univ.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Kwangju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onkwang Unive.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Kwangju

#### 1. Objectives

Through analysing the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of Soeumin based on 『Dongyi Suse Bowon』, We can comprehend Lee Je-ma's point of view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2. Methods

We collect data on the processing of herbal medicines of Soeumin from some books, such as 『Dongyi Suse Bowon Gabogubon』, 『Dongyi Suse Bowon ShinChukbon』 『DongEuiBoGam(東醫寶鑑)』 『DongMuYooGo(東武遺稿)』 On that base, we analyse herbal medicines into Sasang constitution.

#### 3. Results and Conclusions

Most of Herbs for the Soeumin were processed for filling up BoMyungGiJu(保命之主).

**Key Words** : Processing, Herbal Medicines, Soeumin, Sasang Constitution, BoMyungGiJu(保命之主)

## I. 緒 論

修治는 韓醫學 理論에 근거하여 藥材를 가공 처리함으로써 藥材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製藥技術의 일종이다<sup>1</sup>.

韓醫學의 藥材 修治에 대한 연구는 單味 藥材의 修治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 대한 연구들<sup>2-9</sup>과 실험연구<sup>10</sup>가 있다.

사상의학 處方 藥材의 연구는 주로 과거 의

서의 본초학적 분류 및 효능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재해석<sup>11-14</sup>하거나 체질 藥材의 혼용과 효능 및 문헌고찰<sup>15-20</sup>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상의학 處方 藥材의 修治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著者は 사상의학 관련서적에서 少陰人 藥材의 修治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 고찰하여 약간의 소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1. 본 연구는 사상의학 관련서적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sup>21</sup>,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東

• 접수일 2006년 10월 27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처자 : 유관석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광주한방병원 503-310  
사상체질의학회과  
Tel : +82-62-670-6528 Fax : +82-62-670-6767  
E-mail : ezoy2@daum.net  
• 본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22</sup>, 『東武遺稿』<sup>23-24</sup>, 『普濟演說』<sup>25</sup>, 『東醫四象新編』<sup>26</sup>, 『四象金匱秘方』<sup>27</sup>과, 『醫學入門』<sup>28</sup>, 『東醫寶鑑』<sup>29</sup> 등의 문헌을 통해 각 藥材의 修治를 조사하였다.

## 2. 명칭

- 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甲午本』으로 칭하였다.
- 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은 『辛丑本』으로 칭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칭하였다.
- 4) 『醫學入門』은 『入門』으로 칭하였다.

## Ⅲ. 本 論

『東醫壽世保元』<sup>30</sup>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사용된 藥材 41종<sup>13</sup> 중에서 附子, 甘草, 乾薑, 黃芪, 當歸, 白芍藥, 白朮 등의 7종은 사상 관련 서적 중에서 灸, 炮, 炒 등의 修治가 언급되었으며 半夏, 巴豆 의 2종은 직접적인 修治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신경방과 신경방외의 處方에서 修治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타 桂枝, 高良薑, 藿香, 大腹皮, 大蒜, 大棗, 木香, 白豆蔻, 蜂蜜, 砂仁, 山查, 蘇葉, 小茴香, 罌粟殼, 五靈脂, 肉桂, 益母草, 人蔘, 赤石脂, 枳實, 陳皮, 蒼朮, 川芎, 青皮, 生薑, 吳茱萸, 益智仁, 厚朴, 蔥白, 破古紙, 白何首烏, 香附子 등의 32종은 修治에 대한 언급이 없다.

### 1. 附子

附子は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7개 處方에서 사용되며,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에서는 1~2錢으로 쓰이며 升陽益氣附子湯, 白何烏附子理中湯에서는 1錢으로 쓰인다.

附子의 修治는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

萸附子理中湯의 處方구성에서는 炮를 하여 사용했고 升陽益氣附子湯, 白何烏附子理中湯의 處方구성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辛丑本』에서는 附子를 炮해서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辛丑本』의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중에 薑附湯, 附子湯,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에서는 附子를 炮하여 사용하였고 四逆湯, 白通湯에서는 生附子로 사용되었다<sup>2)</sup>. 또한 『辛丑本』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驗要藥」중에 桂枝附子湯, 茵陳四逆湯, 霹靂散 에 附子를 炮하여 사용하였다<sup>3)</sup>.

『草本卷』에서는 附子를 炮하여 사용하였다<sup>4)</sup>.

『甲午本』에서 茵陳附子湯은 炮)하여 쓰였고 人蔘黃芪附子湯, 獨蔘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의 處方구성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되었으나 原文에 附子는 炮하거나 생으로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sup>6)</sup>.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四象人 藥材類」에 炮附子는 脾元의 藥이라고 제시되어 있고<sup>7)</sup>, 「禁忌」에 少陰人 溫中하는 데 附子를 生用해서는 안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sup>8)</sup> 「病

- 1) 『辛丑本』 「附子 炮用 甘草 灸用 乾薑 炮用 或 生用 黃芪 灸用 或 生用」
- 2)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薑附湯 乾薑 1兩, 附子 2枚 剉取 5錢 水煎服 附子生用 名曰 白通湯. 附子湯 白朮 4錢, 白芍藥 白茯苓 各3錢, 附子 炮, 人蔘 各2錢 麻黃附子細辛湯 麻黃, 細辛 各2錢, 附子 炮 1錢 麻黃附子甘草湯 麻黃, 甘草 各2錢, 附子 炮 1錢 四逆湯 甘草 6錢, 乾薑 炮 5錢, 生附子 1枚 剉分二貼 水煎服」
- 3) 『辛丑本』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桂枝附子湯 附子 炮 桂枝 各 3錢, 白芍藥 2錢, 甘草 炙 1錢, 薑 3片, 棗 2枚 茵陳四逆湯 茵陳 1兩, 附子 乾薑 炮 甘草 炙 各 1錢 霹靂散 附子 1枚 炮過 以冷灰 培半時取出 切半枚 細剉 入臘茶 錢 水一盞 煎至六分 去渣 入熟蜜半匙 放冷服之 須臾 躁止 得睡汗出 差」
- 4) 『草本卷』 「病變 第六統」 「當歸 白芍藥 微炒 白朮 半炒 乾薑 附子 南星 炮用 黃芪 灸用」
- 5) 『甲午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 巴豆藥六方」 「茵陳附子湯 茵陳 1兩, 附子 炮 甘草 炙 各 1錢」
- 6) 『甲午本』 「已上諸藥中 乾薑 生用而或炮用 附子 炮用而或生用 黃芪·甘草 灸用 白朮 或微炒用」
- 7)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四象人 藥材類」 「炮附子爲脾元帥之藥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冷氣侮脾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
- 8) 『東武遺稿』 「禁忌」 「少陰人溫中乾薑附子白朮等藥生

Table 1. Processing of Aconiti lateralis Preparata Radix(附子)

서적명	내용
『甲午本』	炮用, 生用
『辛丑本』	炮用, 生用 (傷寒論의 白通湯, 四逆湯은 生用)
『草本卷』	炮用
『東武遺稿』	炮用, 生用 (少陰人 咽喉病에 生用)
『東醫四象新編』	관련 내용 없음
『普濟演說』	炮用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炮用『湯液篇』
『醫學入門』	炒用 煮法重便

症各論」에 少陰人의 咽喉病에 生附子를 입에 물고 있게 하면 잘 낫는다고 제시되어 있다 9).

『普濟演說』에서는 「少陰人單方」에 附子를 炮用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10). 『東醫寶鑑』 <丹心>에 반드시 써서 터지도록 구워 껍질과 배꼽을 버리고 쓴다고 제시되어 있다 11).

『入門』에는 잘라서 노릇하게 초하여 童便에 담갔다 쓰면 약 기운이 하행한다고 하였다 12).

## 2. 甘草

甘草는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18處方에서 使用되며 黃芪桂枝湯, 升揚益氣湯, 補中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川芎桂枝湯, 芎歸香蘇散,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桂枝半夏生薑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에서 쓰였으며 모두 1錢으로 쓰였다. 甘草는 黃芪桂枝湯, 升揚益氣湯, 補中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川芎桂枝湯,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桂枝半夏生薑湯,

用不可也”

- 9) 『東武遺稿』 「病症各論」, “咽喉病生附子含口則妙也”
- 10) 『普濟演說』 「少陰人單方」, “右少陰人藥, 附子炮用, 甘草灸用. 乾薑炮用生用, 黃芪灸用生用”
- 11) 『東醫寶鑑』 「湯液篇」, “大凡用 須炮 令裂去皮臍 使之 <丹心>”
- 12) 『入門』 「本草寒類」, “須薄切 炒 令表裏皆黃 有用童便 煮而浸之 以助下行”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의 處方 구성에서는 灸하여 使用되었고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芎歸香蘇散의 處方 구성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使用되었다.

『辛丑本』에서는 甘草는 灸用 함이 제시되었고 1), 『草本卷』에 甘草를 灸했을 때 脾를 補하고 生用했을 때 肝을 補하는 效能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13).

『甲午本』에서는 甘草를 灸해서 使用하라 하였다 6).

張仲景의 『傷寒論』 31에서는 甘草湯 桔梗湯에서 生甘草를 使用하는 例가 있다 14).

『東醫寶鑑』 <湯液>에 灸用 하면 中焦를 補하고, 生用 하면 瀉火 한다 하였고 15) <入門>에 生用 하면 消腫導毒 한다고 하였다 16).

『普濟演說』에는 甘草를 灸하여 쓰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四象人 藥材類」에 甘草는 脾藥으로 灸用 하면 溫中하고 生用 하면 瀉火한다는 내용과 灸甘草는 脾를 굳건하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7).

『入門』에 甘草는 生으로 쓰면 瀉火하고 灸하면 健脾 하여 조화롭게 한다고 명시하였다 18).

## 3. 黃芪

黃芪는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8處方에서 使用되며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

- 13) 『草本卷』 「病變 第六統」, “甘草 生用則補肝 灸用則補脾”
- 14) 『傷寒論』 “少陰病 二三日 咽痛者 可與甘草湯 不差與桔梗湯” “甘草湯 甘草 2兩右一味, 以水三升, 煮取二升半, 去滓, 溫服七合, 日二服” “桔梗湯 桔梗 1兩甘草 2兩. 右二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溫分再服”
- 15) 『東醫寶鑑』 「湯液篇 修製法」 “入足三陰經灸則和中生則瀉火 <湯液>”
- 16) 『東醫寶鑑』 「湯液篇 修製法」 “生用則消腫導毒 <入門>”
- 17)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四象人 藥材類」 “甘草甘溫調和諸藥灸則溫中生則瀉火 灸甘草固脾立脾”
- 18) 『入門』 「本草濕類」, “甘草生瀉火 灸之健胃可和中”

Table 2. Processing of Glycyrrhizae Radix(甘草)

서적명	내용
『甲午本』	灸用
『辛丑本』	灸用
『草本卷』	灸用
『東武遺稿』	生用, 灸用
『東醫四象新編』	灸用
『普濟演說』	灸用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生用, 灸用「湯液篇」
『醫學入門』	生用, 灸用

Table 3. Processing of Astragali Radix(黃芪)

서적명	내용
『甲午本』	灸用
『辛丑本』	灸用, 生用
『草本卷』	灸用
『東武遺稿』	관련 내용 없음
『東醫四象新編』	관련 내용 없음
『普濟演說』	灸用, 生用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生用, 蜜水炒, 鹽水炒「湯液篇」, 蜜炒, 蜜灸
『醫學入門』	生用, 蜜水炒, 鹽水炒

湯에서는 3錢으로 쓰이고 升揚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에서는 2錢, 八物君子湯에서는 1錢으로 쓰였다.

『辛丑本』, 『甲午本』, 『草本卷』의 處方 구성에서는 黃芪 修治에 대한 언급이 없이 使用되었으나 『辛丑本』에 黃芪는 灸用하거나 生用 하라고 제시되어 있고<sup>1)</sup> 『甲午本』과 『草本卷』에 黃芪를 灸用하라고 제시되어 있다<sup>4)</sup>.

『普濟演說』에 黃芪를 灸用하거나 生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東醫四象新編』, 『四象金匱秘方』, 『東武遺稿』에는 黃芪의 修治에 관한 내용이 없다.

『入門』에 瘡瘍에는 생것으로 쓰고, 肺가 虛한 데는 꿀물에 죽여 볶아 쓰며, 下焦가 虛한 데는 소금물에 죽여 볶아 쓴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9)</sup>.

#### 4. 乾薑

乾薑은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7處方에서 使用되며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에서는 2錢, 薑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赤白何烏寬中湯에서는 1錢으로 쓰였다. 新定方 處方에서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에서는 炮하여 使用되었고 나머지 薑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赤白何烏寬中湯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使用되었다.

『甲午本』과 『辛丑本』에 乾薑은 炮用하거나 生用 함이 제시되었고<sup>16)</sup> 『草本卷』에는 炮함이 제시되어 있다<sup>4)</sup>.

『東醫寶鑑』 <湯液>에 乾薑은 물에 씻어서 약한 불에 통째로 구워 쓰며 구운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생 것은 발산시키며 피를 멎게 하려면 거뭇거뭇하게 되도록 볶아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sup>20)</sup>. <丹心>에 乾薑을 불에 法製하면 약 기운이 머물러 있게 되므로 속이 찬 증이 치료된다고 하였다<sup>21)</sup>.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炮乾薑은 冷을 치료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sup>22)</sup>, 「禁忌」에 少陰人 溫申하는 데 附子를 生用해서는 안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普濟演說』에서는 乾薑은 炮用하거나 生用하고 『東醫四象新編』에는 附子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薑附湯, 四逆湯, 茵陳四逆湯에서 炮乾薑이 사용되었다.

『四象金匱秘方』에서는 乾薑을 炮, 燒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sup>23)</sup>.

19) 『入門』 “瘡瘍生用 肺虛蜜水炒 下虛 塩水炒”

20) 『東醫寶鑑』 「湯液篇」 “水洗慢火炮用 炮則溫中生則發表若止血須炒令黑用之 <湯液>”

21) 『東醫寶鑑』 「湯液篇」 “乾薑見火則止而不移所以能治裏寒也 <丹心>”

22)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乾薑味辛解表風寒炮苦逐冷虛熱尤堪”

23) 『四象金匱秘方』 「霍亂」 “少陰人 人蔘二兩 生薑一兩 煎三分服…… 吳茱萸炒乾薑炮等分 水煎服, 生薑三兩 酒煎服” 「傷酒」 “少陰人 白朮一斤 乾薑炮桂心各半斤 蜜丸梧子大 每三十介 溫水下” 「痢疾」 “少陰人 大蒜五箇 濃煎 和蜜服, 乾薑 燒存性 每一

Table 4. Processing of Zingiberis Rhizoma(乾薑)

서적명	내용
『甲午本』	炮用, 生用
『辛丑本』	炮用, 生用
『草本卷』	炮用
『東武遺稿』	炮用
『東醫四象新編』	炮用
『普濟演說』	炮用, 生用
『四象金匱秘方』	炮用, 燒法
『東醫寶鑑』	炮用, 生用, 炒黑 「湯液篇」
『醫學入門』	炮用, 生用, 炒黑

『入門』에 乾薑은 生用하면 寒邪를 發하고 炮用하면 脾胃를 溫하고 炒黑하면 止血, 生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24)</sup>.

5. 當歸

當歸는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11處方에서 使用되며 香附子八物湯에서 2錢으로 쓰이고 黃芪桂枝湯 升揚益氣湯, 補中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芎歸香蘇散, 八物君子湯, 人蔘吳茱萸湯에서 1錢으로 쓰였다. 新定方 處方에서 當歸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使用되었다.

『草本卷』에 當歸는 微炒하여 使用됨이 제시되었다<sup>4)</sup>.

『甲午本』과 『辛丑本』, 『東武遺稿』, 『東醫四象新編』, 『普濟演說』, 『四象金匱秘方』에서 當歸 修治에 관한 내용은 없다.

『東醫寶鑑』 <東垣> 에 술에 담갔다가 쓰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였다<sup>25)</sup>. 그리고 <丹心> 에 當歸는 술로 法製해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sup>26)</sup>.

錢 米飲下”  
 24) 『入門』 “乾薑 生用發寒邪 利肺欬逆身痺麻 炮苦守中溫脾胃 瘧痢霍亂腹疼佳 炒黑止血又生血 產後潮熱退無些”  
 25) 『東醫寶鑑』 「湯液篇」 “得酒浸過良 <東垣>”  
 26) 『東醫寶鑑』 「湯液篇 修製法」 “當歸須用酒製 痰以薑汁浸透者 導血歸源之理也 熟地黃亦然 痰病 半夏爲主 以生薑汁·白礬湯浸制 殺其辛味 且造麩入藥尤佳 妊婦傷寒 用半夏多泡遍數 不損胎氣 <丹心>”

Table 5. Processing of Angelicae Gigantis Radix(當歸)

서적명	내용
『甲午本』	관련 내용 없음
『辛丑本』	관련 내용 없음
『草本卷』	微炒用
『東武遺稿』	관련 내용 없음
『東醫四象新編』	관련 내용 없음
『普濟演說』	관련 내용 없음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酒浸 「湯液篇」
『醫學入門』	酒浸, 酒洗, 酒蒸, 薑汁炒

『入門』에 상부의 병을 치료하려면 술에 담갔다 쓰고, 외부의 병을 치료하려면 술로 씻어서 쓰며, 血病에 쓸 때는 술에 죽여 찌서 쓰며, 痰이 있을 때는 생강즙에 죽여 볶아서 쓴다고 제시하였다<sup>27)</sup>.

6. 白芍藥

白芍藥은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17處方에서 使用되며 黃芪桂枝湯, 升揚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川芎桂枝湯, 香附子八物湯,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附子理中湯에서 2錢으로 쓰이고, 八物君子湯, 人蔘吳茱萸湯, 香砂養胃湯 桂枝半夏生薑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蒜蜜湯에서 1錢으로 쓰인다. 新定方 處方에서 白芍藥은 白何烏附子理中湯에서 微炒하여 使用되었고<sup>28)</sup>, 나머지 處方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使用되었다.

『草本卷』에 白芍藥은 微炒하여 使用되었고<sup>4)</sup>, 『普濟演說』, 『東醫四象新編』의 白何烏附子理中湯의 處方구성에서 微炒用하는 내용이 있다.

『甲午本』과 『辛丑本』, 『四象金匱秘方』에 白芍藥 修治에 관한 내용은 없다.

『東武遺稿』에 少陰人의 腹痛에 白芍藥 炒해 쓰는 내용이 명시되었다<sup>29)</sup>.

27) 『入門』 “治上酒浸治外酒洗血病酒蒸痰用薑汁炒”  
 28) 『辛丑本』 “白何烏附子理中湯 白何首烏白朮炒白芍藥 微炒桂枝炮乾薑各二錢陳皮炙甘草炮附子各一錢”

Table 6. Processing of Paeoniae Radix Alba(白芍藥)

서적명	내용
『甲午本』	관련 내용 없음
『辛丑本』	微炒用
『草本卷』	微炒用
『東武遺稿』	炒用
『東醫四象新編』	微炒用
『普濟演說』	微炒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炒用「湯液篇」
『醫學入門』	酒浸炒, 煨用

『入門』에 술에 축여 볶아서도 쓰고 잿불에 묻어 구워서도 쓴다고 하였고<sup>30)</sup>, 『東醫寶鑑』 <丹心>에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을 멎게 하는 데는 반드시 볶아서 쓰고, 뒤가 무지근한 데는 볶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sup>31)</sup>.

7. 白朮

白朮은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11處方에서 사용되었으며,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에서는 2錢 쓰였고, 補中益氣湯,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桂枝半夏生薑湯, 蒜蜜湯에서는 1錢으로 쓰였다. 新定方 處方에서 白朮은 白何烏附子理中湯에서 炒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處方에서는 修治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되었다.

『甲午本』에 白朮은 간혹 微炒用 하고<sup>6)</sup>, 少陰病은 극도로 위중한 病證으로 炒白朮 炮乾薑 生附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sup>32)</sup>.

『草本卷』에서 白朮은 半炒하여 쓰고<sup>4)</sup>, 『入門』

29) 『東武遺稿』 「病症各論」 “白芍藥炒三錢白朮五錢上藥也”  
 30) 『入門』 “出杭越茅山者佳 酒浸炒 或煨 雷丸 爲使 惡石斛 畏 硝石 鱉甲 小蘗 反 藜蘆”  
 31) 『東醫寶鑑』 「湯液篇」 “芍藥酒浸炒與白朮同用則能補脾與川芎同用則瀉肝與參朮同用則補氣治腹痛下痢者必炒後重則不炒又云收降之體故能至血海入於九地之下得之足厥陰經也 <丹心>”  
 32) 『甲午本』 “少陰病極重 証用炒白朮 炮乾薑 生附子 而生附子非好藥也不可過五分”

Table 7. Processing of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白朮)

서적명	내용
『甲午本』	微炒用
『辛丑本』	炒用
『草本卷』	半炒
『東武遺稿』	관련 내용 없음
『東醫四象新編』	炒用
『普濟演說』	炒用
『四象金匱秘方』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生用, 土炒「湯液篇」
『醫學入門』	生用, 土炒

에 胃火를 瀉하는 데는 생것을 쓰고 胃虛를 補할 때는 황토와 같이 볶아 쓴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sup>33)</sup>.

『普濟演說』, 『東醫四象新編』의 白何烏附子理中湯의 處方 구성에서 炒用하여 쓰였고,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에는 白朮의 修治에 관한 내용이 없다.

8. 半夏

半夏는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에 3處方에서 사용되었으며, 桂枝半夏生薑湯에서는 2錢,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에서는 1錢으로 사용되었다. 新定方에 쓰인 處方에서는 半夏의 修治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辛丑本』 「張仲景傷寒論中少陰人病經驗設方」에 半夏散, 半夏瀉心湯, 甘草瀉心湯에서 半夏를 法製하여 쓰였고, 少陽人 「張仲景傷寒論中少陽人病經驗設方」에 小陷胸湯에서 半夏가 法製되어 사용되었다.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四象人 藥材類」에 製半夏에 대한 언급이 있다<sup>34)</sup>.

『東醫四象新編』에서는 修治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四象金匱秘方』에는 薑汁炒<sup>35)</sup>, 煨乾<sup>36)</sup>

33) 『入門』 “瀉胃火 生用 補胃虛 土炒”  
 34)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半夏味辛健脾燥濕痰厥頭痛嘔噦入 製半夏消脾痰” 「四象人 藥材類」 “製半夏 消脾痰”  
 35) 『四象金匱秘方』 「咳嗽」 “少陰人 半夏干炒 南星 等分爲末 蜜丸梧子大 每五七介 橘皮湯下” “不寐” “少陰人 半夏干炒三錢 煎服 日再” “驚悸” “少陰人 人蔘五錢 半夏干炒三錢 煎服”

Table 8. Processing of Pinelliae Rhizoma(半夏)

서적명	내용
『甲午本』	法製半夏
『辛丑本』	法製半夏
『草本卷』	관련 내용 없음
『東武遺稿』	法製半夏
『東醫四象新編』	관련 내용 없음
『普濟演說』	관련 내용 없음
『四象金匱秘方』	薑汁炒, 焙乾
『東醫寶鑑』	法製半夏「湯液篇」

하는 내용이 있다.

『東醫寶鑑』 <回春>에 法製半夏는 큰半夏 1근 석회 1근을 擘수 7사발과 함께 동이에 넣고 잘 저어서 놓아두었다가 가라앉으면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옷물만 받아서 여기에 半夏를 담고 손으로 저으면서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히기를 7일 동안 하여 건져낸다. 이것을 정화수로 서너 차례 씻은 다음 매일 세 번씩 물을 갈아주면서 3일 동안 우려서 꺼내어 말린다. 그리고 백반 8냥과 피초 1근을 擘수 7-8사발과 함께 동이에 넣고 저어서 여기에 半夏를 담고 다음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히면서 7일 동안 두었다가 꺼내어서 물로 서너 차례 씻은 다음 매일 세 번씩 물을 갈아 주면서 3일 동안 우려서 꺼내어 말린다. 그 다음 甘草 박하 각각 4냥 정향 지실 목향 백강진피 청피 지각 오미자 측사 각각 5錢, 백두구 육계 각각 3錢, 침향 1錢을 얇게 찢어서 擘수 15사발과 半夏를 함께 동이에 넣어 14일 동안 우려내는데,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이슬을 맞히면서 잘 저어서 날이 차거든 약과 半夏를 꺼내어서 흰 천으로 싸가지고 뜨겁게 달군 구덩이 속에 넣고 그릇으로 덮어 선향 세 대가 타기를 기다렸다가 약과 半夏를 가려낸 다음 半夏만 말려서 뒤두고 쓴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sup>37)</sup>.

36) 『四象金匱秘方』 「面病」, “少陰人 半夏焙乾 和醋傳連三日後 以艾葉湯洗之”  
 37) 『東醫寶鑑』 「痰飲門 法製半夏」, “大半夏一斤 石灰一

### 9. 巴豆

巴豆는 『東醫壽世保元』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중 1處方에서 사용되었으며 巴豆丹에서 1粒 去殼하여 사용되었다.

『辛丑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에 溫白元三, 瘴疽丸, 三稜消積丸, 秘方和滯丸, 三物白散, 如意丹에 사용되었다. 三稜消積丸에서는 炒黑하여 사용되었고<sup>38)</sup>, 秘方和滯丸에서는 하룻밤 식초에 담겼다 쓰고<sup>39)</sup>, 三物白散에서는 去皮心하여 볶아 찢어서 쓴다<sup>40)</sup>.

『東醫寶鑑』 <湯液>에 만약 급히 효과를 기대하여 대소변을 통하게 할 약으로 쓰려면 곱질과 심과 막을 제거하고 기름을 뺀 다음 생것을 쓰고, 천천히 효과를 나게 하여 판단한 것이나 적을 삭히려는 약으로 쓰려면 물을 갈아 부으면서 다섯 번 삶아 연기가 나지 않고 빛이 자흑색이 될 때까지 볶아 가루 내어 쓴다는 내

斤 滾水七碗 入盆內 攪掠澄清去滓 將半夏浸之 手攪日晒 夜露七日 撈出并華水洗淨三四次泡三日 每日換水三次 撈起控乾 用白礬八兩 皮硝一斤 滾水七八碗 入盆內 攪掠浸半夏七日 日晒夜露 取出水洗三四次 泡三日 每日換水三次 取出控乾 入甘草 薄荷 各四兩 丁香 枳實 木香 白薑 陳皮 青皮 枳殼 五味子 縮砂 各五錢 白豆蔻 肉桂 各三錢 沈香一錢 右切片 滾水十五碗 將半夏同藥 共入盆內 泡二七日 日晒夜露 攪之 日足取出 藥與半夏用白布包住 放在熱炕 用器皿 覆住三炷香時 藥與半夏分胎 半夏乾收用 有痰火者 服之一日 大便出似魚膠 一宿盡除 痰根 永不生也 此藥化痰如神 若不信 將半夏七八粒 研入痰梳 化爲清水 有痰疾 中風 不語 研七八粒 并水送下 以手摩運腹上 則醴能言 <回春>”

38) 『辛丑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 “三稜消積丸 三稜蓬朮神麴各七錢 巴豆和皮入米同炒黑去米青皮陳皮茴香各五錢 丁香皮益智仁各三錢 右爲末醋糊和丸 梧子大薑湯下三四丸 此方出於李梴東垣書中治生冷物不消滿悶”  
 39) 『辛丑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 “秘方化滯丸 三稜蓬朮並煨各四錢 八分半夏麴木香丁香青皮陳皮並去白黃連各二錢 五分巴豆肉醋浸一宿 熬乾六錢 右爲末以烏梅末入麴少許 煮作糊和丸 黍米大每服五七丸 至十丸 欲通利則以熱湯下 欲磨積則陳皮湯下 欲止泄則飲冷水 理一切氣化一切積 久堅沉痼磨之 自消 暴積乍留導之 立去 奪造化有通塞之功 調陰陽有補瀉之妙 此方出於朱震亨丹溪心法書中”  
 40) 『辛丑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 “三物白散 桔梗貝母各三錢 巴豆去皮心熬研如脂一錢 右爲末和勻白湯和服 半錢 弱人減半 或吐或利不利進熱粥一碗 利不進冷粥一碗”

Table 9. Processing of Crotonis Fructus(巴豆)

서적명	내용
『甲午本』	去殼, 三稜消積丸에서 炒黑, 秘方和滯丸 醋浸一宿熬乾, 三物白散 去皮心熬研如脂
『辛丑本』	去殼, 三稜消積丸에서 炒黑, 秘方和滯丸 醋浸一宿熬乾, 三物白散 去皮心熬研如脂
『草本卷』	관련 내용 없음
『東武遺稿』	生用
『東醫四象新編』	灸用
『普濟演說』	去殼去皮心熬研如脂
『四象金匱秘方』	去皮心熬研如脂, 燒法
『東醫寶鑑』	生用, 炒用
『醫學入門』	生用, 炒用

용이 제시되어 있다<sup>41)</sup>.

『東武遺稿』에서는 生用하는 경우가 있었고<sup>42)</sup>, 『普濟演說』에서는 去殼, 去皮心 하고 쪼아서 쓴다는 내용<sup>43)</sup>이 있다.

『東醫四象新編』에 巴豆를 灸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sup>44)</sup>, 三稜消積丸, 秘方和滯丸, 三物白散에서의 修治는 『辛丑本』과 같다.

『四象金匱秘方』에 皮心を 제거하고 볶아 갈아 쓴다는 내용과 燒法이 제시되어 있다<sup>45)</sup>.

『入門』에는 巴豆를 生用 혹은 炒用 함이 명시되어 있다<sup>46)</sup>.

41) 『東醫寶鑑』「湯液篇」“斬關奪門之將 不可輕用 若急治 爲水穀道路之劑 去皮心膜油生用. 若緩治 爲消堅磨積之劑 換水煮五次 或炒烟盡 色紫黑 研用可以通腸 可以止泄 <湯液 >”  
 42) 『東武遺稿』「病症各論」“關格乾霍亂濕霍亂 緊藥則如意丹溫白丸備急丸可也 症輕則生巴豆一介可也 症重則二介也 也也餘則尤用之實難也”“有如此等事而腸中硬脹面色點青則急用生巴豆一介二時內人中不汗泄瀉不下則此一介不足故也二介三介亦可也”  
 43) 『普濟演說』“三物白散 桔梗 貝母 各三錢 巴豆(去皮心熬研如脂) 一錢”  
 44) 『東醫四象新編』“巴豆丹 通利大便 巴豆一粒 去殼 溫水吞下 若熟灸 名 溫化丹 亦治大便秘”  
 45) 『四象金匱秘方』“痢疾 少陰人 巴豆 去皮心 熬研 作丸 綠豆大 三四介式 米飲下”“脫肛 少陰人 巴豆殼 燒存性 和眞油傳之”  
 46) 『入門』“巴豆 大毒味辛熱 主蕩胃中寒積結 氣血痰食 水癖消 更通月水排膿血 出巴蜀, 形如豆. 一種剛子 顆小似棗核兩頭尖者, 能殺人. 本草云: 生溫熱寒. 其實熱, 毒藥也. 惟急治通水穀道, 生用去心膜, 紙攤去油, 緩治消堅磨積, 水煮五次, 或炒烟盡色黑研用 可以通腸, 可以止瀉, 世所不知 此雷公說也.”

## Ⅳ. 考 察

附子は 사상관련 서적에서 附子는 炮用 또는 生附子로 使用되었고, 『入門』에서 炒法 煮法(重便)을 사용하였다.

黃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升陽益氣附子湯, 白何烏附子理中湯에서의 附子の 쓰임을 보았을 때 少陰人의 亡陽未證이나 少陰證에 使用된다.

『甲午本』에서 生附子는 좋은 약이 아니며 5분이상 쓰지 말라는 것으로<sup>47)</sup> 生附子에 대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으며, 『新定方 處方』에서 그 쓰임을 보았을 때 附子는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극대화하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炮해서 使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甘草의 修治는 生用 혹은 灸用인데 일부 『傷寒論』의 生甘草가 쓰이는 甘草湯 桔梗湯의 意味를 찾아보면 清熱瀉火의 意味가 강하다. 한<sup>32)</sup> 등의 연구에서 甘草는 生用하면 藥性이 寒, 涼해지지만 灸用하면 溫熱하게 변화되고 灸用하면 補脾胃, 強心의 작용이 있다. 『少陰人 新定方』에서 甘草의 意味는 傷寒論 處方에서 쓰였던 것처럼 清熱瀉火보다는 補脾胃의 意味, 脾胃局을 補하는데 意義를 두어 灸用하였다.

黃芪의 修治는 사상관련 서적에서 灸用 혹은 生用하고, 『東醫寶鑑』, 『入門』에서 生用, 炒用, 灸用, 蜜水炒, 鹽水炒 등 다양하다. 『入門』에 언급된 것처럼 瘡瘍에 生用할 수 있으며, 少陰人 亡陽證과 鬱狂證 일부에 쓰이는 藥材로서 灸用할 수 있다.

乾薑은 炮用, 生用, 炒用, 燒法을 이용한다. 乾薑이 쓰이는 處方을 보면 少陰人 太陰證 少陰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東武遺稿』의 炮하였을 때 逐冷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炮用하는 것이 乾薑의 修治效果를 극대화할 것

47) 『甲午本』“少陰病極重證 用炒白朮·炮乾薑·生附子 而 生附子 非好藥也 不可過五分”

으로 보인다.

當歸는 『草本卷』에 微炒用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기타 사상 관련 서적에서 修治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으며 『草本卷』에 脾의 元師藥으로 炒用한다는 내용이 있다<sup>48)</sup>.

白芍藥의 修治는 사상관련 서적에서 微炒하여 쓰인다. 『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 직접 白芍藥을 炒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當歸와 마찬가지로 少陰人 處方에서의 當歸의 쓰임을 보았을 때 陽暖之氣를 극대화 하기 위해 炒用하였다.

白朮은 사상관련 서적에서 대부분 炒用하여 사용되며 『甲午本』에 白朮은 微炒하지만 소음병에 있어서 白朮을 초하여 써야 함을 명시하였다. 위급한 소음병에 修治를 倍加시켜 陽暖之氣의 활성화를 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白朮은 炒用 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半夏는 「少陰人 新定方 處方」에서 桂枝半夏生薑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세 處方에서 쓰였으나, 그 修治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신정방 외의 處方에서半夏는 法製하여 쓰였고, 『東武遺稿』에 法製半夏는 脾痰을 흠어버리는 效能을 지니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sup>49)</sup> 『四象金匱秘方』에 薑汁炒, 焙乾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공<sup>33)</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半夏는 炮炙法을 통해 독성효과를 감소시키고 치료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半夏 修治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法製半夏의 상승효과를 볼때, 마땅히半夏는 法製하여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巴豆는 生用, 灸用, 炒用, 燒法, 酒浸后熬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巴豆는 少陰人 鬱狂證이나 太陰證에 쓸 수 있는데 巴豆의 峻烈한 성질로 보아 去殼后 生用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灸用, 炒用, 酒浸后熬研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四象金匱秘方』에서 吳茱萸를 炒用<sup>23)</sup>, 炮用<sup>50)</sup>

하는 예가 있으며, 生薑을 炒用<sup>51)</sup>, 煨用<sup>52)</sup>함이 제시되어 있고, 益智仁을 鹽水炒하고 厚朴을 薑汁炒<sup>53)</sup>하는 내용이 있다.

少陰人 藥材를 炒, 灸, 炮하여 사용하는 것은 火氣를 북돋아 修治함으로써, 完聚하고 脾元을 調和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바로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少陰人의 藥材는 陰化되기 쉬운 少陰人의 경향성을 升陽益氣, 裨陰降氣의 치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는데 炒, 灸, 炮의 修治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藥性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V. 結 論

1. 少陰人 藥材에 대해 炒, 灸, 炮의 修治를 시행하는 것은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2. 附子는 炮用, 生用하였다.
3. 甘草는 灸用, 生用하였다.
4. 黃芪는 灸用, 生用하였다.
5. 乾薑은 炮用, 生用하였다.
6. 當歸는 炒用하였다.
7. 白芍藥은 炒用하였다.
8. 白朮은 炒用하였다.
9. 半夏는 法製하였다.
10. 巴豆는 灸用, 炒用, 生用 하였다.

## VI. 參考文獻

1.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저. 本草學. 永林社, 서울, 1995.
2. 한청광, 안덕균. 甘草의 修治에 따른 효능변화. 『四象金匱秘方』에서 吳茱萸를 炒用<sup>23)</sup>, 炮用<sup>50)</sup> 鹽少許服之”
- 51) 『四象金匱秘方』“中暑 少陰人 香薷厚朴干炒 各八兩 爲末每五錢 以水二盞酒半盞調服”
- 52) 『四象金匱秘方』“腹痛 少陰人 烏藥三錢 入煨薑一錢 煎服”
- 53) 『四象金匱秘方』“赤白濁 少陰人 益智仁鹽水炒 厚朴干炒 各三錢 水煎服”

48) 『草本卷』“凡藥性之過于橫散者 或炒 或灸 或炮 使完聚而保和脾元”

49) 『東武遺稿』“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半夏味辛 健脾燥濕痰厥頭痛嘔噦入 製半夏消脾痰”

50) 『四象金匱秘方』“泄瀉 少陰人 吳茱萸炮三錢 水煎入

- 대한본초학회지. 1986;1(0):23-26.
3. 유덕렬, 안덕균. 창출 白朮의 修治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986;1(0):32-40.
  4. 선중기, 신민교, 송호준. 오두류의 修治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본초학회지. 1989;4(1): 35-42.
  5. 고운채. 맥이의 修治에 따른 효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본초학회지. 1995;10(1):157-164.
  6. 공복철, 고운채. 半夏의 修治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본초학회지. 1996;11(1):157-173.
  7. 김인락, 황금희, 주혜정. 韓藥材의 보관, 절단, 修治, 전탕법에 관한 연구 1. 육계. 대한본초학회지. 1998;13(2):19-29.
  8. 김인락, 황금희, 주혜정. 韓藥材의 보관, 절단, 修治, 전탕법에 관한 연구 3. 후박. 대한본초학회지. 1999;14(1):15-22.
  9. 황정, 서영배. 황철석 韓藥材의 조취법 修治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03;18(2):27-35.
  10. 김형환, 이현경, 강순아, 안덕균, 박성규. 주침 修治 방법에 따른 증대황이 백서 흥부대동 맥 혈관이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4; 19(1):103-110.
  11. 김종열, 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太陰人 및 太陽人篇).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1-9.
  12. 김종열, 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陽人篇).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3):1-7.
  13. 김종열, 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篇).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1):8-16.
  14. 崔松南. 四象藥物 分割原理에 대한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97-100.
  15. 최성륜. 소양인에 있어서 고삼의 약물작용.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67-68.
  16. 정광희, 고병희, 송일병.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석고의 약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10-119.
  17. 정국영, 고병희, 송일병. 석창포의 약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241-252.
  18. 정국영, 송일병. 위령선의 약리에 대한 사상 의학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 151-162.
  19. 김명균, 박성식. 사상체질별 약물의 혼용에 관한 문헌적 연구(동의수세보원 甲午本과 辛丑本 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1):33-44.
  20. 김명균, 박성식. 사상체질별 약물의 혼용에 관한 문헌적 연구. 2005;17(3):22-30.
  21. 김달래 編譯. 이제마 原著 東醫壽世保元 甲午 舊本. 木 괴士, 서울, 2002.
  22. 朴性植 譯解.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23. 권건혁 역. 이제마 原著. 국역 동의수세보원 부록 東武遺稿. 도서출판 반룡, 서울, 1999.
  24. 이창일 역주. 이제마 지음. 東武遺稿. 청계, 서울, 2004.
  25. 김달래 篇譯. 東醫壽世保元補編. 대성의학사, 서울, 2002.
  26. 량병무 譯註. 元德必 編著. 東醫四象新編. 해동의학사, 서울, 1999.
  27. 장문경 譯. 李敏鳳 著. 金匱秘方. 해동의학사, 서울, 1999.
  28.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 대성의학사 서울, 1994.
  29. 동의문헌연구실 편역. 허준 저.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05.
  3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 의학. 集文堂, 서울, 1998.
  31. 蔡仁植 譯. 張仲景 著. 傷寒論譯銓. 高文社, 서울, 1995.
  32. 한청광, 안덕균. 甘草 修治에 따른 효능 변화. 대한본초학회지. 1986;1(0):23-26.
  33. 공복철, 고운채. 半夏의 修治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본초학회지. 1996;11(1):157-173.